

韓·日 불자청소년 교류 정례화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사진 왼쪽)과 아시아불교도협회 회장 우시우 닛슈 스님이 한·일 청소년 교류 정례회를 약속하며 협약식을 가졌다.

요즘 청소년들의 해외문화 탐방 욕구가 높아졌다. 불자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와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우시우 닛슈)가 한국과 일본 불자청

소년들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7일 한국역사불교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두 단체는 간헐적이던 불자청소년들의 교류를 정례화 시키기로 결의하며 '한·일 불교청소년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파라미타·아시아불교도협 협약 체결

이에 따라 여름에는 한국불자청소년들이 일본으로 오고, 겨울에는 일본불자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12월 22~26일 일본청소년 20명이 붓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내년 7월 25일(예정)에는 한국청소년들이 일본 묘법사에서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의 의미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 불자청소년들의 우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 모두 불자청소년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청소년 포교의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두 단체는 한·일 불자청소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자리잡고 나면 이후 타이완·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국가 청소년들이 모두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결의한 것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불교도협회에서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과 사무총장 덕조 스님을 내년 초 일본에 초청하기도 했다.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은 "이번 교류로 한·일 불자청소년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우정을 쌓아 미래 양국 우호, 불교 세계 흥포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우시우 닛슈(일본 법화종 묘법사 주지) 스님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 미래에는 모두 화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대선후보 초청 불교정책 토론회 연다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TV서 생중계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불교정책을 들여보는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가 11월 21일 오후 3시 개최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불교TV가 공동주최하고 제17대 대선후보초청 불교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중앙일간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가 참여해 종교정책과 불교관계법관련 개정문제, 문화·문화재·환경·사회복지 관련 정책 등을 설명한다. 토론회는 패널 질의에 의한 응답과 후보자간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며, 토론회 과정은 불교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제17대 대선후보초청 불교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는 이미 각 대선 후보 진영의 불교특보들과 사전회의를 진행했으며, 불교정책기획단은 불교계의 현안문제와 정책과제를 수집·정리하는 등 토론회 준비를 마쳤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올해 대선의 주요 정책방향 ▲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한 물질문명의 폐해 극복 ▲상생과 화합의 실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 ▲환경 및 생태의 보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정착으로 정했다. (02)732-7274

여수령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사전 대비를”

불교계 기관 잇단 세미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교계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복지시설 탐색 및 소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복지재단은 세미나를 기점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존 운영시설의 성공 사례 등을 소개, 불교계가 급격한 복지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 주제는 '저출산·고

령사회 이행에 따른 주요정책 동향 분석(순천향대학교 조성희 교수)', '경기도 은빛사랑채 사업 조장을 통한 사찰 내 노인주간보호소 설치 모색(서울노인복지센터 정은하 연구원)'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도 11월 27일 오후 3시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불교계 역할모델 개발 세미나'를 연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여성불자 역할(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시민사회적 발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대응전략과 특성화 프로그램 모색(NGO리서치연구소 윤남진 부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 연구성과 중간보고회 개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립)는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11월 10~11일 개최했다.

2011년 사업완료로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 공개와 중간평가를 겸해 열린 이번 국제워크숍은 디지털 사업을 추진 중인 한일 양국이 학술 문화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일 양국 및 미국, 영국 4개국의 대장경 및 전산전경 7명이 초조대장경 이미지데이터베이스 시연, 남산사 일체경과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전산화 프로젝트, 동아시아 대장경 유통의 3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바르고 깨끗한 선거 치뤄요”

종교지도자협 대국민 호소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자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동참하자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민

의식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서 ▲유권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투표에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응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배영호 천주교 주교회의의 사무총장,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농협 종로지점 생명나눔 동참

"생명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서울 종로지점 직원 13명 전원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에 장기기증신청서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서 11월 7일 열린 전달식에서는 생명나눔 참여단체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13명 직원이 장기기증서약을 통한 장기기증 신청자는 총 1213명(11월 9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김강진 기자

김천 직지사서 대선법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11월 18일 오후 2시 김천 직지사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대선법회'를 개최한다.

법회에서는 전국선원수좌회장 혜국 스님이 법사로 나서 참가자들을 간화선의 세계로 이끈다. 혜국 스님의 법문 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실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간화선 입문자나 간화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02)2011-1891

여수령 기자

“경부운하 건설 땀 불교문화재 훼손”

보림·금강회,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 폐기 촉구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관)와 금강회(회장 보선)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이 불교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림회와 금강회 소속 스님들은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대운하구간 중 조령수터널은 백두대간의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며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지반 변이 등 산지 파괴는 물론이며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령수터널은 한강 수계의 충주호와 낙동강 상류 조령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20.5km의 터널을 말한다.

또한 '경부운하 조령대수터널 관통에 따른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피해예상 의견서'도 작성해 배포했다.

보림회와 금강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안국포럼을 방문해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촉구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수령 기자

친청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정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원]

I Love Buddha / 나무아미타불

용정운(www.zenlo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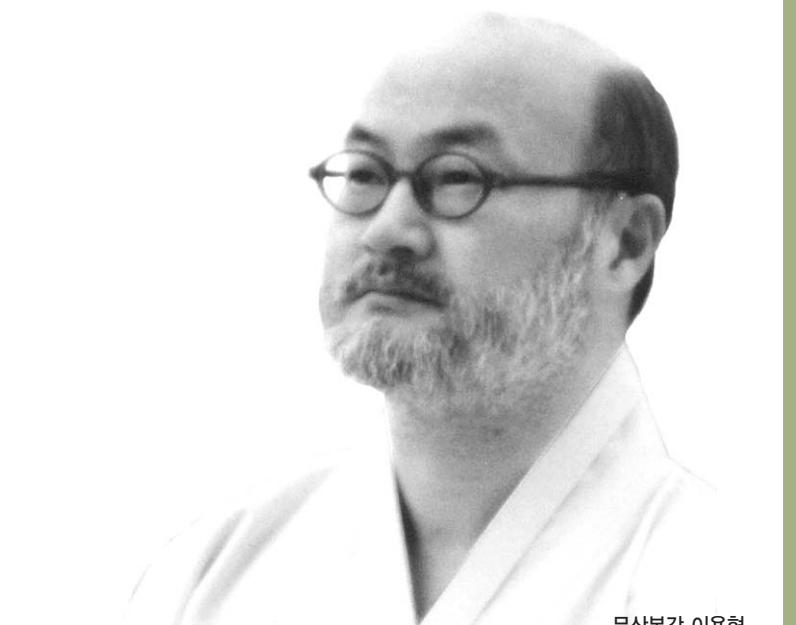
2,60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붓다의 6단계 정통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

《불설대안반수외경》에는 수數·수隨·지止·관觀·환환·정靜의 여섯 가지 수행관문이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유일한 길' 혹은 '성스러운 길'이라 부르는 이 붓다의 정통 수행법은 오랜 세월 속에서 파편화되어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계에서는 짜마타를, 남방 근본불교계에서는 위빠싸나를 위주로 한 수행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붓다 입멸 후 흩어지거나 잊혀졌던 수행법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하여 일관되고 완벽한 수행 시스템으로 재해석, 재조직한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하게 복원되

기에 이르렀고,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적인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는 붓다고사의 《칭정도론》에도 언급되지 않은 짜마타(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짜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도교의 명지명지'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붓다의 여섯 단계 수행법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환'과 '정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교 수행법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무산본각 이용현



무산본각 지음 | 전 2권 (각권 18,000원)

(주)선경 태어난 지사장과 주춧이런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란 이리크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태어난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이반삼경묵계성표후트포차'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으나, 곧 침된 경계가 아성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효를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짜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병수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한 그는 현대 목포의 마음다기선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